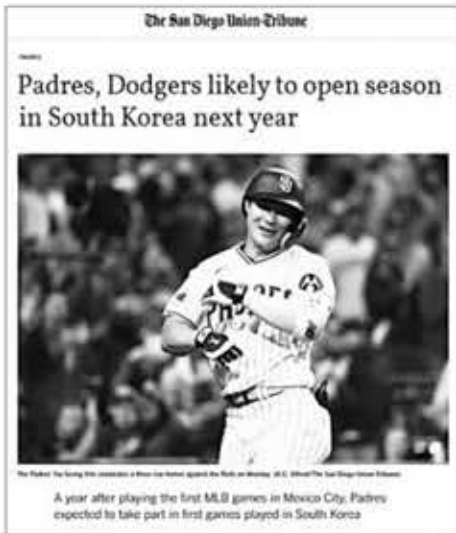


다저스·파드리스, 내년 한국에서 개막전 추진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LA 다저스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가 내년 3월 한국에서의 개막전을 추진한다.

8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샌디에이고 지역지 '샌디에이고 유니언 트리뷴'은 이날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내셔널리그 서부 지구 라이벌인 두 팀이 한국에서 열리는 사상 첫 MLB 경기로 2024시즌을 시작할 계획"이라면서 "내년 3월 말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샌디에이고와 LA 다저스가 개막 2연전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하성(샌디에이고)은 '샌디에이고 유니언 트리뷴' 인터뷰에서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서 기대하고 있다."며 "한국 야구팬의 열정을 전 세



▲메이저리그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한국 경기 추진을 보도하는 샌디에이고 유니언-트리뷴. 사진=sandiegouniontribune.com

계에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 팬들은 LA 다저스를 사랑한다. 박찬호, 류현진이 있었다. 샌디에이고 역시 매년 한국 팬이 늘고 있다."면서 "정말 멋진 일,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하성은 고척돔을 홈구장으로 쓰는 한국프로야구단 '키움'에서 2020년까지 뛰었다.

MLB 개막전 한국 개최는 허구연 KBO 총재가 지난해 미국에서 KBO리그 개막전을 여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을 때부터 긴밀하게 협의하기 시작했다. MLB 사무국은 야구 세계화를 위해 영국 런던, 멕시코 멕시코시티 등 세계 각지에서 MLB 정규시즌 경기를 치르고 있다.

한국축구, 아시안컵 조 편성 무난 ... 65년 만에 우승 도전

한국축구가 아시안컵 조추첨식에서 무난한 조에 들었다.

아시아축구연맹(AFC)은 11일 카타르 도하에서 2023년 아시안컵 조추첨식을 열었다. 한국은 말레이시아, 요르단, 바레인, 그리고 함께 E조에 속했다. 한국은 요르단을 상대로 3승 2무, 바레인을 상대로 11승 4무 1패, 말레이시아 상대로는 26승 12무 8패를 기록하고 있다.

토너먼트 진출은 비교적 수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안컵은 24개 팀이 4개 팀씩 6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른 뒤 각 조 1·2위 12개 팀과 3위 6개 팀 중 성적이 좋은 상위 4개 팀을 더한 16개 팀이 토너먼트로 우승을 가린다.



▲2023 아시안컵 로고. 사진=the-afc.com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64년 만의 우승을 노린다. 한국은 1956년 초대 대회와 1960년 2회 대회까지 연속 우승을 차지한 후 정상에 오르지 못했다

클린스만 감독은 조추첨 후 "쉬운 조는 없다. 말레이시아 요르단 등 상대를 빨리 파악해야 한다."며 "좋은 팀들이 많고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 강한 팀을 가졌다. 우리의 목표는 아시안컵을 우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애초 아시안컵은 올해 중국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중국이 코로나19로 개최권을 포기하며 내년 1월12일부터 2월10일까지 카타르에서 열린다.

PGA 'US오픈' 예선서 나온 불운



▲골프 코스 그리니의 에어레이션 마크. 사진=twitter(USGA)

PGA 'US오픈' 예선전에서 62타를 치고도 탈락한 참가자가 나왔다.

11일 '서울경제'에 따르면 일리노이대 졸업반인 토미 쿨은 이를 전(9일)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의 일리노이CC에서 열린 US 오픈 지역 예선에서 62타의 코스 레코드를 작성하면서 최종 예선 진출을 예약했다. 하지만 쿨은 경기 후 얼마 뒤 경기 위원에게 찾아가 돌연 실격을 요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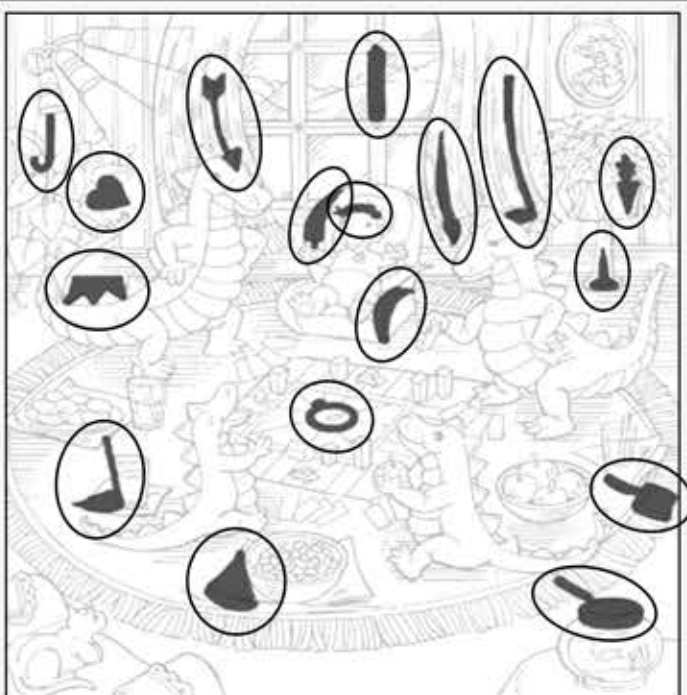
자신의 경기를 마치고 친구의 남은 경기를 지켜보던 쿨은 "그린이 에어레이션 마크(aeration marks)로 뒤덮여 있어서 하루 종일 퍼트에 애를 먹었지 뭐야. 안 그래?"라는 친구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자신은 에어레이션 마크를 수차례 수리하면서 경기했기 때문이다. 쿨은 경기 위원한테 그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편히 잠잘 수 없을 거란 생각이 들어 사실을 밝혔고 결국 실격 처리됐다.

에어레이션 마크 또는 에어레이션 홈은 그리니의 습기를 제거하고 잘 마를 수 있게 환기를 돕는 코스 관리 작업 중에 생긴다.

한 경기 위원은 "수리해도 문제없다고 로컬물로 정하고 경기하지 않은 이상 실격은 되돌릴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미국 골프다이제스트는 "쿨은 (다음 달 US 오픈 개최지인) 로스앤젤레스CC 입성은 물거품됐지만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 악몽을 꿀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숨은그림찾기 정답



숫자퍼즐 정답

8	1	4	9	6	7	3	2	5
3	5	9	1	2	8	4	6	7
2	6	7	5	3	4	9	1	8
4	8	1	7	9	5	6	3	2
5	2	6	3	8	1	7	9	4
7	9	3	2	4	6	8	5	1
1	3	5	8	7	9	2	4	6
9	4	8	6	5	2	1	7	3
6	7	2	4	1	3	5	8	9